

“동학운동 ‘유광화 편지’ 역사바로알기 소중한 사료”

‘나주 출신 동학농민군 편지’ 발굴 문화재 등록 건인 정명광 학에서

양반 신분으로 혁명 참여... 1894년 동생에게 쓴 한문 서한 “우리 문화·역사 자료 발굴 최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파”

동학농민혁명 1894년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 군들이 반봉건, 반외세의 가치를 들고 봉기한 농민 중심의 민중항쟁이었다. 이후 의병항쟁은 물론 3·1 독립운동,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참여했던 농민군이 작성한 문서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반란군으로 몰려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거나 이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문서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최근 나주 출신 양반가 자제의 ‘동학농민군 편지’가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1894년 11월께 유광화(1858-1894)가 아우 광팔에게 보낸 한문 서한이 그것. 이 편지는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양반가 자제도 있었고, 이들이 군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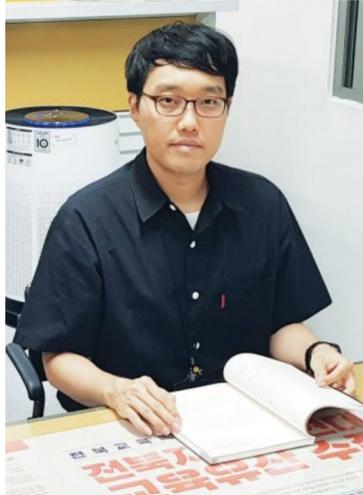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왼쪽)와 발굴에 기여한 정명광 학에서.

정 학에서는 복사본 형태의 흑백사진을 보는 순간, “국가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1994년 동학운동 100주년을 전후로 역사학계에서는 동학혁명으로 격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다양한 사료를 발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그 편지 또한 자료집에 수록된 것 같다”는 계 정 학에서의 생각이었다. 편지는 1894년에 쓰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시에 실물 편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실제로 찾고싶다는 각오로 이어졌다. “다들 찾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도 많이 지난 데다 아직까지도 우리



정 학에서는 복사본 형태의 흑백사진을 보는 순간, “국가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사회에서는 동학 참여자의 후손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들이 많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습니다 정 학에서는 유족을 만나 편지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이상식 교수와 연락이 됐고, 그렇게 해서 광주에서 유광화의 손자 유길홍(작고)의 부인 김순덕 여사를 함께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여사님께 자료 관련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취지에 공감하셨다”며 “저희의 연락을 받고 ‘책상과 책장을 꼼꼼히 살폈는데, 구석진 곳에 쫓긴 책갈피에서 편지를 발견했다”며 전후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기증유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편지 원문

이 맞고, 1894년 기록물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념재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가문화재 등록 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최종 등록문화재로 결정됐다.

편지 주인공 유광화는 나주 다도 출신으로 통정대부를 역임한 유몽렬의 아들이다. 광화는 그의 자(子)이며 본명은 유재희이며 호는 죽산(竹山)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양반 신분임에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 나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애국정신을 견지했다. 당시 그에게는 5살 아들과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휘하에는 700명의 농민군이 있었으며 그는 군사물자를 조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등록조사보고서 의견에는 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적시돼 있다.

“자신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으니 동생에게 군자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등, 편지 내용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들의 처지, 농민군 지도자들의 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급박했던 전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 우금지에서 패한 농민군은 이후 해산했으며, 1894년 12월 1일 최정선은 농민군을 이끌고 화순 동북으로 갔으나 대부분 체포, 사살되거나 나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유광화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광화가 동생에게 편지를 보낸 시점은 1894년 11월쯤으로 가능하다.

한편 군산 출신인 정 학에서는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후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지난 2007년부터 박물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좋아하는 역사를 공부해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 역사와 관련된 자료 등을 수집, 연구해 많은 분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대 K-컬처공연·기획학과 김현정·손나연 사회공헌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수상

조선대학교 K-컬처공연·기획학과 학생 김현정·손나연씨(지도교수 정지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한 ‘SDGs 사회공헌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SDGs 사회공헌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공모사업이다. 공모주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와 협력(Partnership) 등 5P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다뤘다.

두 사람은 사람(People)의 영역과 관련해 ‘건강과 웰빙 증진’을 목표과제로 아이디어를 제출해



김현정씨 손나연씨

1차 예선을 통과했다. 이어 2차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해 최종 장려상(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소프라노 조수미 모친상 “어머니 위한 노래 계속”

조수미를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키워낸 모친 김말순 씨가 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약 10년 전 치매에 걸려 오랫동안 병원에서 생활했다. 조수미는 치매에 고생하는 모친을 위해 2019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담은 앨범 ‘마더’(Mother)를 발표했고,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예술의전당에서 ‘나의 어머니’라는 타이틀로 리사이틀을 열었다.

‘마더’ 발표 당시 조수미는 간담회에서 성악가가 되지 못한 어머니가 어린 시절 하루에 8시간 동안 연습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엄하게 대했지만, 차츰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고인은 2003년 정부로부터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고, 2006년 남편 조연오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수미에게 장례식에 참석하는 대신 프랑스 파리 공연을 마차라고 이야기했다.

조수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의 엄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셨지만 어머니를 위한 나의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젠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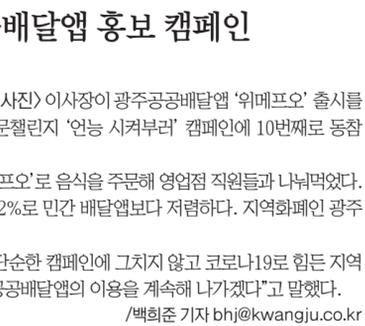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 공공배달앱 홍보 캠페인

광주신보증재단은 변정섭(사진) 이사장이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 출시를 알리고 이용을 늘리기 위한 주문철헤리지 ‘언는 시켜부러’ 캠페인에 10번째로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변 이사장은 공공배달앱 ‘위메프’로 음식을 주문해 영업점 직원들과 나눠먹었다.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2%로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다. 지역화폐인 광주 상생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변 이사장은 “이번 철헤리지가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공공배달앱의 이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화순군 직원들이 최근 헌혈 행사를 하고 헌혈증서 200매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화순군 직원들, 화순전남대병원에 헌혈증 기부

화순군(군수 구충곤) 직원들이 최근 헌혈 행사를 하고 헌혈증서 200매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화순군(군수 구충곤) 직원들이 최근 헌혈 행사를 하고 헌혈증서 200매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모집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 1096.
- ▲신청동 보은사 목련향당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장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담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7	달뜨기	06:02
해질	19:28	달짐	20:16

식중독 조심

고기압 가장자리 들며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4/33	보성	구름많음	22/33
목포	구름많음	25/31	순천	구름많음	25/35
여수	구름많음	26/33	영광	구름많음	23/31
나주	구름많음	23/33	진도	구름많음	24/31
완도	구름많음	24/33	전주	구름많음	23/32
구례	흐리고비	23/34	군산	구름많음	23/31
강진	구름많음	23/34	남원	구름많음	23/33
해남	맑음	23/33	혁신산	구름많음	26/31
장성	구름많음	22/32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0 면바다(북) 1.0~2.0 면바다(남) 1.0~2.0	0.5~1.0 1.0~2.0 1.0~2.0
남해서부	앞바다 1.5~2.5 면바다(서) 1.5~2.5 면바다(동) 2.0~3.0	0.5~1.5 1.0~2.5 1.5~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12 20:08	02:55 14:47
여수	03:34 15:34	09:32 22:06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위험	높음	좋음

◇ 주간 날씨

10(화)	11(수)	12(목)
24/31	23/31	23/31
13(금)	14(토)	15(일)
23/30	23/29	22/30

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 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1-003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부음

▲김옥남(전 광주시 검도협회 전무이사)씨 별세, 김호연·서현씨 부친상, 차미숙(전 조선대병원 간호팀장)씨 배우자상=발인 10일(화) 오전 9시 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